

##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 한국사회의 저출산은 자녀양육 부담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육의 책임한계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가족 부양과 저출산대책에 중요함

-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분석함('03년 11,106가구, '06년 10,117가구, '09년 9,075가구)

### 1.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 한국부모의 상당수가 자녀양육 책임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심화되고 있음('03년 40.2%, '06년 46.3%, '09년 49.6%)

○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다음으로 강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약화되고 있음('03년 32.1%, '06년 27.0%, '09년 23.1%)

○ 그들의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은 세 번째로 높았으며,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03년 11.5%, '06년 11.9%, '09년 12.2%)

[표 1]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구분	조사연도		
	2003년	2006년	2009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3	8.6	9.6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0.2	46.3	49.6
취업할 때까지	11.5	11.9	12.2
혼인할 때까지	32.1	27.0	23.1
언제(까지)라도	6.3	5.5	5.0
기타	0.6	0.1	0.1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1.0	0.5	0.4
계(수)	100.0(11,106)	100.0(10,117)	100.0(9,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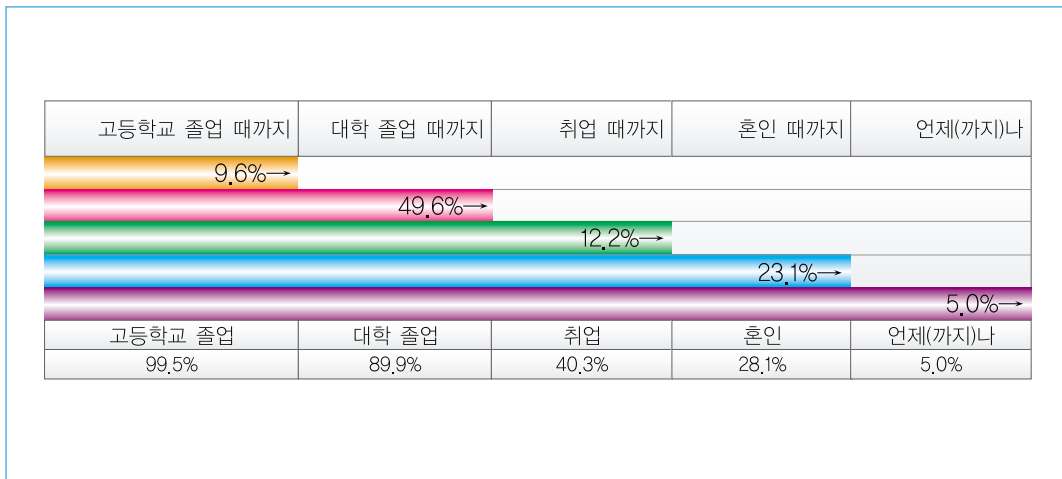
주: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 한국부모의 99.5%는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을 책임져야 하고, 89.9%는 대학 졸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음

○또한 자녀가 취업을 한 이후에도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한국부모는 28.1%이었으며, 평생 양육책임을 가진다는 부모도 5.0%가 있었음

○따라서 한국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의식은 매우 강하였으며, 이는 양육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1] 자녀양육 책임한계 : 2009년



□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거주지역, 가구소득, 응답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50.1%로 많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46.8%로 다소 적었으며, 반면에 ‘혼인할 때까지’를 책임한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25.7%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22.6%보다 많았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혼인할 때까지’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28.1%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대의 소득가구는 22.1%로 가장 적었음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책임한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2] 응답자 특성별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 2009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취업 때까지	혼인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모르겠음	계(수)	$\chi^2$
거주지역									
동부	9.6	50.1	12.4	22.6	4.8	0.1	0.4	100,0(7,681)	13.9*
읍·면부	9.5	46.8	11.5	25.7	6.2	0.1	0.2	100,0(1,39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6	37.2	14.7	28.1	6.8	0.2	0.4	100,0( 516)	113.0***
100~199만원	13.8	44.9	12.6	22.1	5.9	-	0.7	100,0(1,382)	
200~299만원	11.2	48.8	11.8	22.9	5.1	0.1	0.2	100,0(2,034)	
300만원 이상	7.6	52.4	12.1	22.9	4.5	0.1	0.3	100,0(5,143)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21.0	45.0	11.3	19.3	3.0	0.3	-	100,0( 300)	488.1***
30~39세	15.2	52.1	10.3	16.4	5.1	0.1	0.7	100,0(2,303)	
40~49세	8.2	56.0	11.2	19.6	4.6	0.1	0.3	100,0(3,504)	
50~59세	5.7	40.5	15.0	32.9	5.6	0.0	0.2	100,0(2,966)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37.3	15.2	31.8	6.8	-	0.2	100,0(1,417)	158.1***
고등학교	9.1	49.7	12.4	23.3	4.8	0.1	0.5	100,0(3,795)	
대학 이상	10.4	54.0	11.0	19.7	4.5	0.1	0.3	100,0(3,862)	

자료: 1) 기타에는 이들은 군대 제대까지, 딸은 결혼할 때까지 또는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대학입학 때까지, 자녀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등이 있음  
 2) \* p<.05, \*\*\* p<.001

## 2. 한국인의 자녀양육비 지출 실태

### 가. 자녀양육비 지출의 의미

- 인구부양비에 있어서 유년부양비는 낮은 출산율에 힘입어 감소하였으나 부모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자녀부양부담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것이 사실임
  - 이는 한국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자녀의 다양한 요구 등에 기인되는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자녀양육비의 증가는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은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출발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
  - 자녀의 양육비 규모의 추정은 개별가구 측면에서는 출산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가계 예산 수립, 생애주기를 통한 가계재무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빈곤이나 소득분배, 공공복지정책 등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짐

### 나. 자녀양육비 지출항목

- 가구원 모두의 가구소비지출 항목으로 10개를 분류하였으며, 이는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 등임

○이 중에서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는 자녀순위별 지출액을 각각 질문하여 자녀의 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였음

[표 3] 가구지출 항목별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식료품비	곡류, 육류, 낙농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피복비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등(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기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
보건의료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영양제, 한약제)
교육비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
보충교육비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주거 및 광열수도비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 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튼 등 포함)
교양오락비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킴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완구, 오락기기 구입)
교통통신비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 통신이용료, 기타 통신(스쿨버스비))
기타 소비지출	담배, 술, 이·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구입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잡비(용돈 등)

### 다. 자녀양육비 지출

- 실제 가구소비지출 중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소비되는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소비지출의 구조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실태를 분석함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로 하였으며, 재수생과 대학생은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포함하였음

-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는 '09년 100만 9천원으로 '03년 74만 8천원, '06년 91만 2천원보다 증가를 보였음

○아동개인별로 지출되는 '아동개인비용'의 월평균 지출액은 '03년 45만 4천원, '06년 55만 6천원, '09년 59만 9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항목별로는 사교육비(23만원)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고, 다음은 식료품비(15만 6천원), 공교육비(15만 3천원) 등의 순이었음
- 의복·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미미하나마 2006년 보다 감소하였음

- 가구공동으로 지출되는 전체 비용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자녀 1인당 지출되는 '가구공동비용'의 월평균 지출은 '03년 29만 4천원에서, '06년 35만 6천원, '09년 41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가구공동비용 5개 항목 중 기타 소비지출이 가장 많았음
  - 다음은 교통통신비로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은 '03년 8만 2천원에서, '06년 10만 6천원, '09년 11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중교통비와 개인휴대폰 요금 때문으로 판단됨

[표 4] 가구지출 항목별 세부 내용

(단위: 명, 만원)

특성		조사연도		
		2003년	2006년	2009년
(분석아동수)		(14,221)	(11,816)	(11,496)
아동 개인 비용	식료품비	12.7	15.4	15.6
	의복·신발비	3.7	4.8	4.4
	보건의료비	1.7	2.1	1.6
	공교육비	12.1	13.1	15.3
	사교육비	15.2	20.3	23.0
가구 공동 비용	주거 및 광열수도비	4.8	5.6	5.5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0.9	1.1	1.3
	교양오락비	1.7	2.6	2.6
	교통통신비	8.2	10.6	11.2
	기타 소비지출	13.8	15.7	20.4
전체		74.8	91.2	100.9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09년 기준으로 월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을 자녀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양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아 68만 5천원, 유아 81만 6천원, 초등학교 87만 5천원, 중학생 98만 2천원, 고등학교 115만 4천원, 대학생 141만 9천원이었음
- 연령층별 지출구조는 상이하였는데, 출생 직후 3년간은 식료품비가, 초·중·고등학교 기간에는 사교육비가, 대학생은 공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었음
  - 영아기(0~2세)는 식료품비의 지출이 12.2만원으로 가장 컸음
  - 사교육비의 지출은 유아(3~5세) 18.1만원, 초등학교(6~11세) 28.6만원, 중학생(12~14세) 34.1만원, 고등학교(15~17세) 33.5만원으로 심하였음
  - 대학생(18세 이상)은 공교육비 지출이 54.1만원으로 가장 컸음

[표 5] 자녀연령별 각 지출항목의 월평균 지출액 : 2009년 기준

(단위: 명, 만원)

특성		자녀연령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분석이동수)		(1,347)	(1,227)	(3,176)	(1,791)	(1,778)	(2,177)
아동 개인 비용	식료품비	12.2	12.8	14.2	15.7	17.8	19.6
	의복·신발비	6.5	3.8	3.7	3.8	4.1	5.3
	보건의료비	4.0	1.6	1.4	1.2	1.4	0.9
	공교육비	0.8	8.5	3.2	4.3	16.2	54.1
	사교육비	7.5	18.1	28.6	34.1	33.5	9.4
가구 공동 비용	주거 및 광열수도비	4.8	4.6	4.7	5.1	5.7	7.7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1.5	1.4	1.2	1.3	1.3	1.4
	교양오락비	2.2	2.4	2.4	2.5	2.6	3.3
	교통통신비	10.0	9.7	9.8	10.8	12.0	14.4
	기타 소비지출	19.0	18.7	18.3	19.4	20.8	25.8
전체		68.5	81.6	87.5	98.2	115.4	141.9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3. 자녀 1명의 출생~대학졸업까지의 양육비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의견은 '대학 졸업 때까지'가 가장 많았음

○따라서 출생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자녀양육비 추정에 의하여 한국인의 자녀양육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09년 기준으로 출생후 대학 졸업시까지 22년간 자녀 한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2억 6,204만 4천원으로 추정됨

○자녀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양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육부담이 아동성장에 따라 큰 것으로 파악됨

-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용은 2,466만원이었음
- 유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용은 2,937만 6천원이었음
- 초등학교 학생에게 6년간 지출되는 양육비용은 6,300만원이었음
- 중학교 학생에게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용은 3,535만 2천원이었음
- 고등학교 학생에게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용은 4,154만 4천원이었음
-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용은 6,811만 2천원이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전혀 중단이 없이 또는 재수하지 않고 다닌다는 가정에 의한 것임

- 만약, 휴학, 재수, 어학연수 등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게 될 것임

[표 6]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및 전체 양육비용 추정 : 2009년 기준

자녀의 연령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0~2세)	2,466만원	3년간 총비용
유아기(3~5세)	2,937만 6천원	3년간 총비용
초등학교(6~11세)	6,300만원	6년간 총비용
중학교(12~14세)	3,535만 2천원	3년간 총비용
고등학교(15~17세)	4,154만 4천원	3년간 총비용
대학교(18~21세)	6,811만 2천원	4년간 총비용
전체(출생후 대학졸업시까지)	2억 6,204만 4천원	22년간 총비용

자료: <표 5>와 동일

- '09년 기준으로 산출된 양육비 추정결과를 2010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5%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출생후 대학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2억 7,514만 6천 2백원이 소요됨

○취학전인 영유아기 6년간은 5,673만 7천 8백원, 초·중·고등학생 12년간은 1억 4,689만 8백원, 대학생 4년간은 7151만 7천 6백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4. 시사점과 정책과제

### 가. 시사점

- 한국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양육부담을 크게 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자녀양육에 대한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소자녀를 선호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저출산 사회가 도래하게 된 주요인이라 판단됨
  -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국가의존적 태도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자녀 한 명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출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본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함
  -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약 5억 2408만원이 소요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는데 7억 861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외에도 자녀의 어학연수 및 결혼비용 등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한국부모는 자녀양육에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양육비의 약 23%라는 점은 사교육으로 인한 망국론(亡國論), 망가족론(亡家族論)이 대두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또한 휴대폰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교통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매월 11만 2천원이 소요되어 전체 양육비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

## 나. 정책과제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갖도록 부모 스스로 노력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노후생활을 감안한 자녀양육 계획을 수립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구의 경우와 같이 대학 과정부터 자녀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 평생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사교육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자금 용자제도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해야 함
  - 사교육 근절대책의 효과가 여전히 미흡하므로 현행 제도를 재평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저리의 대학 학자금 용자제도를 확대하고, 보다 유연하게 용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함
- 교통통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자녀 스스로의 노력과 요금인하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초·중·고생의 휴대폰 소유가 필수가 되어 버린 우리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함
  - 또한 학생에게 적합한 기능을 가진 저렴한 휴대폰의 보급과 다양한 할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
- 학벌중심, 고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 변화를 유도하는 노동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을 나와야 능력자가 되고 고소득의 근무여건이 좋은 직장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학력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고등교육을 방지함

김승권 (복지서비스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02-380-82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